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문제 현황과 설명변인에서의 성차

이 해 경

한국사이버대학교

김 혜 원[†]

호서대학교

이 논문은 남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또래관계문제의 현황을 밝히고, 또래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ABAS-S청소년행동평가척도(청소년용)를 검사 받은 부산지역 남녀 중학생 3,14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첫째,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행동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은 이성관계에서의 갈등과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남자청소년들은 이성관계문제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반면, 여자청소년은 또래관계의 기술부족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둘째, 또래관계문제가 기타의 문제행동들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지 분석한 결과, 또래관계문제는 나머지 문제행동 모두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학업관련문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또래관계문제의 위험수준과 성별에 따라 다른 문제행동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결과, 범죄성비행에 대한 2원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또래관계문제에 대한 다른 문제행동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모든 문제행동들이 중요한 설명력을 갖고 있고 특히 학업주의문제와 진로문제가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청소년기 또래관계문제가 갖는 의미와 개입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또래관계, 또래관계문제, 청소년, 문제행동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혜원,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부교수
E-mail : hyewkim@hoseo.edu

청소년기에는 가족을 벗어나 보다 넓은 사회접촉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어떤 또래관계를 갖느냐는 한 개인의 행동기준이나 사회성 및 성격발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들은 또래들을 통해 도덕적 판단과 가치를 형성하고 이들로부터 인지적·사회적 자원을 얻고 또래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기술을 연마하며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사회적 역할을 시연하게 된다(이경연, 2010). 이런 중요성으로 인해 만일 청소년기에 또래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 이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문제 뿐 아니라 이후의 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양복금, 김경희, 2001). 실제로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또래관계문제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좌절 경험, 부정적 자아개념의 형성, 학교부적응, 학교중단, 학업능력 저하, 비행, 정신건강 문제 등의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강태경, 2008; 신유림, 2007; 정혜원, 2007;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5).

또래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정의될 수 있는데, 먼저 또래관계문제를 보이는 대상들의 인성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 볼 수 있다. 이 경우 또래관계문제는 한 개인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지나친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와 같은 부적응적 인성특성을 포함한다(강태경, 2008; 정혜원, 2007). 반면, 또래관계문제의 행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위축·소외되거나, 또래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이성 또래와 관계형성을 못하는 등의 문제행동을 포함할 수 있다(이해경, 2003). 후자에 초점을 두는 경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

힘 현상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예: 윤향순, 2009)에서는 집단따돌림, 집단괴롭힘, 왕따 및 학교폭력을 또래관계문제의 대표적인 행동유형으로 볼 뿐만 아니라 또래관계문제와 혼용하기도 한다.

청소년기 또래관계 및 또래관계문제의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또래관계문제의 양상은 어떠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들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또래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히는데 있어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행동들을 주요변인들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이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는 기타 문제행동들의 영향력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행동들은 종종 두 개 이상의 행동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연속해서 나타나, 문제행동증후군(problem behavior syndrome)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김혜원, 임동훈, 2005; 한상철, 2006). 따라서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문제의 원인과 영향변인들을 밝히는데 있어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또래관계문제가 어떤 문제행동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는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둘째, 청소년 또래관계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성차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는 아래 제시되어 있듯이 청소년기의 또래관계 및 또래관계문제는 남녀 청소년들 간에 정도와 양상 모두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에서는 또래관계의 전반적인 특징과 긍정적 측면에 대한 성차는 많이 다른 반면, 또래관계문제의 성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둔 편이다. 특히 또래관계문제와 기타 문제행동들 간의 관련성이 남녀 청소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극히 드문 상태이다. 또래관계문제의 다양한 측면에서 남녀 청소년들 간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또래관계문제와 기타 문제행동들과의 관련성 또한 남녀 청소년에게 있어 동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문제에 대한 기타 문제행동들의 영향력을 밝힘과 동시에 이러한 영향력이 남녀 청소년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탐색은 남녀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고, 이와 함께 남녀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문제의 원인들을 구체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문제의 현황과 위험수준은 어떠하며 이에 대한 성별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문제가 기타의 문제행동들과 갖는 관계는 어떠하며 이에 대한 성별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문제에 대해 다른 문제행동들이 갖는 영향력은 어떠하며 이에 대한 성별 차이는 어떠한가?

청소년 또래관계 및 또래관계문제의 성차

또래관계는 연령과 성숙 수준이 비슷한 청

소년 집단 구성원들이 공통의 관심사나 일련의 행동규칙에 지배를 받으며 상호작용하는 관계이다. 남녀 청소년 모두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또래에 대한 친밀감과 동조성이 높아지고 긴밀한 우정관계를 형성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래관계의 성차를 다룬 연구들에 의하면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은 친구관계의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보여, 단짝친구의 유무, 친한 친구의 수, 친구관계의 지속기간, 친구를 만드는 전략 및 만족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보다 친구관계의 지속기간이 길고(최정미, 김미란, 2003) 여자청소년에 비해 더 큰 친구집단을 갖는다(서주현, 2000). 반면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보다 더 집중적이고 빈번하고 친밀한 2인 관계의 양상을 보이고, 자기노출과 정서적 지원, 감정이입, 갈등해결 노력의 수준이 높고(임지원, 2009; Claes, 1992; Parker & Asher, 1993), 남자청소년에 비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Berndt, 1982, 임지원, 2009 재인용). 남녀 청소년들은 친구를 만드는 전략에서도 차이가 있다. 연구(이점숙, 2003; Forbes, Katz, Paul, & Lubin, 1992, 이점숙, 2003 재인용)에 따르면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에 비해 또래집단에 진입할 때 집단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강압적인 전략을 많이 사용하거나, 자신의 자질을 더 자주 과시하고, 집단구성원을 비판하는 등의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 또한 남자청소년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집단에 맞추는 정도가 줄어드는 반면, 여자청소년은 연령이 증가해도 이러한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대체로 여자청소년은 집단내의 수용과 친밀감 형성에 더 높은 관심을 두는 반면, 남

자청소년은 집단 내 수용보다 높은 지위 획득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여진다(이점숙, 2003).

이와 달리 남녀 청소년들이 또래관계를 통해 얻는 긍정적 경험이나 만족도에 대해서는 비일관적인 결과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에 비해 또래관계에서 긍정적 경험을 더 많이 한다(김재은, 2007; 윤미경, 1998).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재은(2007)의 연구에서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에 비해 상호친밀감이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 또래관계를 더 많이 경험하는 반면,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에 비해 일방적 주도나 철회, 고립과 같은 부정적 또래관계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했다. 김진경과 유안진(2002)의 연구에서는 남녀 청소년들간에 뚜렷한 또래관계의 질차이는 없지만,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에 비해 또래관계에 필요한 의사소통기술(설득, 위로, 대상참조 기술)이 좋고 이러한 기술이 긍정적인 또래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와 달리 일부 연구(최정미, 김미란, 2003)에서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또래관계의 만족도가 낮았고, 이는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이 친구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반면, 일부 연구는 또래관계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경험에 대한 성차가 없다고 보고하기도 했다(나유미, 2000; 유안진, 한유진, 김진경, 2002).

또래관계의 일반적이거나 긍정적 측면에서와 마찬가지로 또래관계문제를 경험하는 정도와 양상에서도 남녀 청소년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또래관계문제인 집단괴롭힘의 경우, 발생빈도는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에게서 더

큰 것으로 보고된다(김혜원, 이해경, 2000a; 박경숙, 손희권, 1998; 양계민, 정현희, 1999; Olweus, 1994). 그러나 괴롭힘의 유형을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에 비해 폭력과 같은 직접적이고 신체적인 괴롭힘을 많이 하는 반면, 여자청소년은 사회적 고립이나 거부, 소문 퍼트리기와 같은 간접적이고 관계적인 괴롭힘을 많이 한다(김혜원, 이해경, 2000a; 박경숙, 손희권, 1998; 양계민, 정현희, 1999; 이점숙, 유안진, 1999; 이은주, 2001; Olweus, 1994).

이와 함께,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또래관계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지도 남녀 청소년 간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남자청소년은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을 많이 표출할수록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반면, 여자청소년은 관계적 공격성을 표출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또래거부가 커진다(이은주, 2001).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성별에 따른 흥미로운 차이가 보였다.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언어적 공격성과 신체적 공격성이 또래거부와 분명하게 관련이 되어 있었지만, 남자청소년의 경우는 언어적 공격성과 달리 신체적 공격성은 또래거부에 대한 뚜렷한 설명변인이 아니었다(Salmivalli et al., 2000, 이은주, 2001 재인용). 이러한 결과는 여자청소년에 비해 남자청소년에게는 또래관계에서의 신체적 공격은 또래거부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인이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여자청소년은 또래관계에서 친밀성과 관계에 관심이 큰 반면, 남자청소년은 또래 속에서의 지위에 관심이 많다는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Ladd, 1990, 이은주, 2001 재인용; Maccoby, 1990, 이은주, 2001 재인용).

청소년 또래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청소년 또래관계문제를 다룬 기존 연구들에서는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문제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요인들에는 청소년들의 가족관련 요인, 학교나 또래관련 요인, 청소년 자신의 심리적 요인 및 청소년이 속해있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포함된다. 이 중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 또래관계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나아가 청소년 또래관계문제를 유발 혹은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밝혀진 다양한 문제행동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는 다른 발달시기보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심체적, 심리적 변화로 인해 다양한 문제행동들을 경험하기 쉽고, 한 영역의 문제행동 경험은 다른 영역의 문제행동 경험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김혜원, 임동훈, 2005; 한상철, 2006). 청소년 또래관계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문제행동들은 첫째, 청소년들이 주변사람들과 경험하는 대인관계 영역, 둘째, 학업 및 진로 영역, 셋째, 섭식문제나 인터넷사용문제와 같은 생활습관 영역, 마지막으로 공격성 및 다양한 비행을 포함하는品行 관련 영역으로 묶어질 수 있다.

대인관계 영역에서의 문제행동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대인관계 중 하나는 가족관계인데, 이 관계에서 얻는 긍정적, 부정적 경험들은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문제와 관련된 가족관계문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포함되는데, 하나는 가족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다. 먼저 가족체계 중에서는 응집

성과 적응성 정도가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 될 수 있다. 가족내 응집성이 높은 경우 이는 효율적인 가족기능을 수행하게 할 뿐 아니라 청소년자녀의 가정 밖 대인관계 수준을 높여준다(김미혜, 2004; 신근수, 2007). 가족 응집성이 높다는 것은 가족간에 상호작용이 많고 사회적인 능력을 습득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높은 가족 응집성을 통해 청소년 자녀들은 또래관계와 같은 사회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신지영, 2000). 또한 가족내 적응성 수준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가족 적응성은 가정 내에 존재하는 지도력, 통제, 훈육, 규칙의 정도를 의미하며 적응성이 높다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경직되어 있지 않고 융통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응성 수준이 높은 가족일수록 청소년 자녀의 대인관계가 긍정적이고 학교에서 교사 뿐 아니라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된다(박향숙, 2004).

이와 함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도 청소년 자녀의 또래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의 순기능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청소년 자녀는 또래관계에서 우의, 정서적·사회적 지지, 인기, 또래만족 등 긍정적 경험을 많이 하며 또래관계의 질이 향상된다(남민숙, 2006; 노진하, 2007; 박의숙, 2003). 이러한 관계에 대해 일부 연구에서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또래관계에 더 중요한 영향력을 가짐을 보여준 반면(최자옥, 2007), 다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유형이 더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보고하기도 한다(허나예, 2009).

두 번째로,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문제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관계로 교사와의 관계를 꼽을 수 있다. 교사관계문제가 청소년기의 주요 문제로 다루어져야 함은 몇몇 경험적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는데, 이해경과 동료들(이해경, 신현숙, 이경성, 2003)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전체 905건) 중 교사와의 관계문제가 201건을 차지했다. 또한 청소년문제영역 중에서도 교사관계문제는 주요 요인으로 추출되었다(이해경, 2003; 이해경, 신현숙, 이경성, 2004). 이해경(2003)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가지는 교사관계문제는 또래관계를 포함하여, 비행, 인터넷중독, 공격행동, 진로·학습문제, 학교부적응, 이성친구문제 각각과 모두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특히 또래관계문제, 학교부적응, 진로·학습문제, 공격행동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김혜진(2006)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생이 지각하는 담임교사의 지지와 아동의 또래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학습의 친구들을 믿고 있는지 않는지의 신뢰감은 자신이 교사로부터 받는 인정·평가와 같은 평가적 지지와 사랑·이행·관심과 같은 정서적 지지 정도에 따라 달라졌다. 또한 학습의 친구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지 멸시하는지의 존중감도 교사의 평가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 정도에 따라 달라졌다. 이러한 영향력은 남녀 아동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교사와 학생간의 의사소통유형은 학생이 학교에서 보이는 또래와의 대인관계 성향과도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고된다. 즉, 담임교사가 자신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교사의 의사만을 강조하는 일방적인 의사소통유형을 갖는다고 인식하는 경우, 학생들은 또래관계에서 지배, 우월, 반항, 불신적인 대인관계 성향을 많이 보였다(채승희, 2003).

학업 및 진로 영역에서의 문제행동

학업적 성취가 또래관계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모델이 제시될 수 있다. 첫 번째로 또래관계에서의 사회적 수행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이 친사회적이고 협동적인 또래관계를 갖는 경우 이는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따라서 학업성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반대로, 학업 성취가 또래관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높은 학업 성취는 또래집단에서 사회적 명예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상(image)을 만들어줌으로써 높은 또래지위를 얻고 또래로부터 존중받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혹은 두 변인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영향을 주고 받음으로써, 또래관계가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학업수행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김잔디, 2003)에서는 학업적 성취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보여주었다. 즉,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높은 학생들보다 또래관계에서 위축적이고 회피적인 경향을 많이 보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커졌고, 초등학교생과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교생에게서 두드러져 고등학교생이 되면 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또래관계에서 위축되고 회피하며 신체증상이나 주의집중의 어려움을 더 많이 느꼈다. 또한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성적의 높고 낮음에 따라 친구관계 양상에도 차이가 있다. 김성훈과 박부권(2006, 김상아, 2008 재인용)의 연구에서는 상위 성적 학생일수록 경쟁적이고 덜 동조적인데 반해 중위성적 학생일수록 협조적이고 믿음에 기초하는 또래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남경희(2006, 김상아, 2008 재인용)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성적

상위 학생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세계를 가짐으로써 친구들의 영향을 받거나 친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지 않는데 반해, 성적이 중간인 학생들은 서로 고민에 대해 상담을 하거나 친구의 조언과 충고를 주고받거나 학습협조를 구하는 등의 활발하고 긍정적인 친구관계 경향성을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박부권(2007, 김상아, 2008 재인용)의 연구에서는 친구들의 스타일이나 행동을 모방할수록, 친구와 우정을 깊이 나눌수록 학업성적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학업성적을 두고 친구와 경쟁할수록, 친구와 사귄 때 가정배경, 성적, 외모 등을 가리는 정도가 심할수록 학업성적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장덕진(2000)의 연구에서는 이상의 결과와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래관계에서의 사회연결망 정도와 학업성적간의 관계를 다룬 결과, 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친구들과의 연결망이 좁고 폐쇄적이었고, 이와 달리 높은 성적을 보이는 학생일수록 개방적인 친구 연결망에 속하거나 아니면 학급 전체에 흩어진 연결망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는 달리 볼 때, 성적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친구들로부터 영향을 적게 받고 상호작용의 빈도도 적음을 보고한 위의 결과들(김성훈, 박부권, 2006, 김상아, 2008 재인용; 남경희, 2006, 김상아, 2008 재인용)과 어느 정도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성적 상위집단의 이런 특성들이 개방적이고 흩어진 구조의 또래관계 형태로 나타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업적 성취는 또래관계의 발달과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김상아(2008)의 연구에 따르면 성적은 초기의 또래관계형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또래와 관계를 유지해나가면서 학생들

은 또래의 성적과 학습태도를 인지하게 되고, 특히 상위권 학생들은 또래의 학습태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성적 유지와 향상을 위해 학습태도가 좋지 않은 또래를 선호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하위권 학생들은 또래의 학습태도보다는 성격을 중시했다. 또한 두 집단 모두는 자신과 성적이 비슷한 또래와 성적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성적에서 차이가 생길 때는 이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성적은 초기의 또래관계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또래관계가 형성된 이후의 관계유지와 해체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들의 진로영역 문제행동들이 또래관계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매우 적다. 그러나 청소년기에는 친한 친구들과 대인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세계를 넓혀 나가고 부모와의 애착에서 벗어나 친구와 애착관계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이 시기의 친구는 청소년의 직업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다룬 제한적인 연구들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친구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경우 이는 그들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이복원, 2008; 이은경, 2000; 하성현, 2006), 친구애착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진로성숙도 또한 증가함(이복원, 2008)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진로성숙도에 대한 친구애착의 영향력은 부모애착의 영향력보다 크고,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에게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설찬미, 2010).

품행관련 영역에서의 문제행동

이상의 대인관계적 측면이나 학업적 수행뿐 아니라 청소년 자신이 가진 부적응적 성격

특성과 이로 인한 부적응적 행동 또한 또래관계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특성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공격성과 충동성, 그리고 이로 인한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꼽을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또래로부터 무시나 고립감을 느끼고 또래와의 갈등이 잦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만한 또래관계를 맺기 어렵다(유안진, 한유진, 김진경, 2002; 조주연, 2010; Hodge, Michel, Frank, & Bukowski, 1999). 집단따돌림 피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수동적인 일반 피해자들과 달리 피해자 중 일부는 ‘공격적인 피해자’의 특성을 지녀, 타인을 방해하거나 공격하거나 따지는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 양상을 보인다(Hodges, et al., 1997). 이러한 공격적인 피해자는 수동적인 피해자에 비해 그 수가 많지 않지만(Olweus, 1978; Schwartz, Dodge, Pettit, & Bates, 1997), 이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또래관계의 결과를 보이면서 학교에서 심각한 행동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Kupersmidt, Patterson, & Eickholt, 1989, 최진희, 1999 재인용). 다른 연구들에서도 또래로부터 인기가 없고 거부당하는 아동들은 공격적이고 파괴적이며 반사회적 행동 특성을 보이고(Coie, Dodge, & Kupersmidt, 1990; Dekovic & Gerris, 1993; Newcomb, Bukowski, & Pattee, 1993), 이와 마찬가지로 외현화 문제행동은 집단따돌림 피해의 중요한 설명변인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최진희, 1999).

공격적 행동과 마찬가지로 일탈적 행동이나 비행은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문제를 유발하는 중요변인이 될 수 있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또래관계의 질이 높아 친구관계에 만족하는 아동은 품행문제와 같은 문제행동을 적게 하고(정성진, 2000) 비행 또한 덜 경험한다(조

주연, 2010; 한현아, 도현심, 2008). 이를 역으로 뒷받침하면서, 일탈적인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고 일반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며 일반 또래들은 일탈적 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을 이기적이고 불쾌한 아이로 간주한다(노영선, 2003). 마찬가지로 Sishion 등(1995, 노영선, 2003 재인용)의 연구에 의하면 친사회적 청소년들과 비교할 때 반사회적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질이 낮고, 상호작용의 지속시간이 짧고, 상호작용에 대해 덜 만족을 느끼고 더 자주 적대적으로 끝난다. Marcus(1996, 노영선, 2003 재인용)의 연구에서도 일탈 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또래관계에서 더욱 갈등적이고 공격적이며, 낮은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또래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복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인지적으로 왜곡되어 있고, 사회-인지적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다. 또한 또래관계문제에 대한 선행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탈이나 비행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높은 또래동조성은 이들의 또래관계 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탈이나 비행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또래지향성과 또래동조성이 높아(남현미, 1999; 오미경, 1998) 주변친구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일탈이나 비행 청소년들은 높은 또래동조성 속에서 약물사용, 성행동, 위험감수행동, 반사회적 행동 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김재은, 2007; 김희화, 2009; 윤혜미, 남영옥, 2007; Flannery, Williams, & Vazsonyi, 1999; Santor, Messervey, & Kusumakar, 2000).

생활습관 영역에서의 문제행동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생활습관상의 몇몇 문제행동은 이들의 또래관계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은 인터넷 중독과 섭식문제이다. 첫 번째로, 인터넷중독과 또래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둘 간의 부적인 관련성을 일관적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PC 사용시간이 늘어날수록 청소년들은 또래들과의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서종달, 2000; 진중순, 2000). 또한 청소년들은 또래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경향이 적고 인터넷 중독 경향이 높을수록 또래 관계에서의 만족도가 낮으며(조춘범, 2001), 인터넷 게임에 대한 몰입정도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부정적이었다(김경신, 2003; 김경호, 2002). 동일한 맥락에서 서주현(2001)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점수가 높은 집단은 일상생활에서의 친구관계의 만족도가 낮지만 흥미롭게도 통신생활에서의 친구관계의 만족도는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높았다. 이와 유사하게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과 비교할 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실제 생활의 친구보다는 인터넷 통신상의 친구를 만나는 경향이 높았다(남윤주, 2003).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인터넷중독 경향과 또래관계는 서로 분명한 부적관계가 있어,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게임에 몰입할수록 실생활속 또래들과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수립은 어려워짐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섭식문제의 영향력을 들 수 있다. 섭식태도의 문제가 심화되어 나타나는 섭식문제는 아동기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전형적인 형태는 청소년기 혹은 성인초기의 여성에게서 주로 발생한다(김정내, 2007).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섭식문제는 또래관계문제에도 영향을 주는데, 섭식문제는 개인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손상 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가족, 학교, 직장 등 거의 모든 생활장면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문제이기 때문이다(Petrie, 1993). 보다 구체적으로 볼 때, 섭식문제나 섭식장애를 일으키는 다양한 변인 중에서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은 섭식장애자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성으로 지적된다(김정내, 2007). 이러한 부모 애착은 발달단계에 따라 친구, 로맨틱 파트너, 배우자 등의 상대로 옮겨가며 모든 대인관계의 기저가 되는데, 특히 섭식장애의 전형적 형태가 나타나는 청소년기는 또래를 주요 애착대상으로 여기고 애착을 형성하는 시기가 된다(Freeman & Brown, 2001). 따라서 청소년들은 섭식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을 다른 누구보다 또래와 공유하기 쉽지만, 섭식문제나 섭식장애의 특징을 갖는 경우 부모관계에서부터 시작된 불안정한 애착이 또래관계에서의 불안정한 애착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Polivy & Herman, 2002). 청소년기의 섭식문제와 또래관계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물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이상의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섭식장애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지지의 원천으로 또래를 인식하는 정도가 매우 낮았다(Chassler, 1997). 또한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정내(2007)의 연구에서도 남녀 모두 섭식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또래에 대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방 법

연구대상자

이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중학생 3,145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지역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지역을 부산으로 한정

하였고, 연령대상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가 중학교(만 13-15세) 시기인 점을 고려하여 중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응답자 중 남자 중학생은 1,955명(62.2%) 여자 중학생은 1,190명(37.8%)이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13.65세(남자 평균 13.61세, 여자 평균 13.72세)였다. 학년별 분포를 보면 1학년은 569명(18.1%), 2학년은 2,438명(77.5%), 3학년은 138명(4.4%)으로 2학년이 가장 많았다(표 1 참조).

표 1.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특성	사례수(%) /평균(SD)	합
성별	남	1,955명(62.2%)
	여	1,190명(37.8%)
나이	13.65세	3,145명
학년	1	569명(18.1%)
	2	2,438명(77.5%)
	3	138명(4.4%)

해당정보 무기입의 경우, 표 안의 빈도산출에 포함시키지 않음.

자료수집 및 절차

자료수집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청소년자기 보고용으로 개발된 청소년행동평가척도(청소년용)(Adolescent Behavior Assessment Scales for Self-Report, ABAS-S)(이해경, 신현숙, 이경성, 2008)(이하 ABAS-S로 칭함)를 개인 혹은 단체 수검자에게 웹검사와 지필검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웹검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별도의 코딩절차 없이 자동채점프로그램에 따라 코딩된 자료로 수집하였고, 지필검사로 얻어진 자료는 웹검사 자료양식에 따라 별도의 코딩절차를 거쳤다.

측정도구

또래관계문제를 포함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행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ABAS-S를 사용하였다. ABAS-S는 한국 중,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주요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청소년행동평가검사로, 학교나 학년단위로 단체 실시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검사이다. ABAS-S는 또래관계문제를 포함하여 총 11개 문제척도(총 132개 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척도 각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가 최근 6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문제행동을 겪었는지를 4점 척도(0 전혀 그런 적이 없다~3 항상 그렇다)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사용된 11개 문제척도의 내용과 문항 예는 아래와 같다.

또래관계문제

또래관계문제(Peer Relations Problem Scale; PeerR). 이 척도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위축, 소외되어 있거나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이성 또래와의 관계 문제를 측정하는 문항 1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에는 ‘또래들(선후배 포함)이 나를 활동이나 모임, 놀이에 고의로 끼워주지 않고 따돌린다’ 등이 있다. 또래관계문제 척도는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또래관계에서의 ‘소외와 외로움(4문항),’ ‘관계기술 부족(4문항),’ ‘갈등과 따돌림(4문항),’ ‘이성친구 문제(3문항)’에 대해서이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영역별 신뢰도계수는 $\alpha = .68$ 에서 $.81$ 사이였다(전체 신뢰도 계수는 $\alpha = .85$).

대인관계 영역 문제

가족관계문제(Family Relations Problem Scale;

FamR). 이 척도는 부모와의 갈등, 부모에 대한 반항적 행동, 가족으로부터 사랑이나 이해를 받지 못하는 등 가족 안에서 불편하거나 문제를 겪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1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에는 ‘우리 가족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alpha = .85$ 였다.

교사관계문제(Teacher Relations Problem Scale; TeaR). 이 척도는 학교 선생님과 대화 안 되거나, 불만이 있거나, 욕을 듣거나 맞거나, 선생님을 무시위하는 행동을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11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에는 ‘선생님과 갈등이 있어서 전학가고 싶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alpha = .88$ 이었다.

학업 및 진로 영역 문제

학업주의문제(Learning/Attention Problem Scale; LeAt). 이 척도는 수업에 대한 이해가 낮거나, 학업성적이 저조하거나, 교과목 학습에 대한 흥미가 없거나, 주의가 산만한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12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문항들에는 ‘정신집중을 해야 하는 공부나 일이 싫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alpha = .88$ 이었다.

진로문제(Career Problem Scale; Car). 이 척도는 진로의식의 미성숙, 진로준비의 부족, 진로에 대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의사결정 곤란과 확신의 부족 등을 측정하는 문항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문제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에는 ‘나의 장단점을 확실히 몰라서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alpha = .91$ 이었다.

품행관련 영역 문제

공격행동(Aggressive Behavior; Agg). 이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남을 위협하거나 못살게 굴거나, 사람이나 동물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거나, 또래를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가해행동을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13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에는 ‘남에게 먼저 싸움을 건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alpha = .83$ 이었다.

충동과다행동(Impulsive/Hyperactive Behavior Scale; ImHy). 이 척도는 말이나 행동을 충동적으로 하거나, 과다하게 많이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에는 ‘쉬는 시간에도 조용히 있지 않고 계속 떠들거나 돌아다닌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alpha = .70$ 이었다.

지위비행(Status Delinquency Scale; SDel). 이 척도는 음주나 흡연, 가출, 무단결석과 등교거부, 학교에서 정한 규칙 어기기 등 청소년들의 지위에서 일탈된 행동 즉, 비행과 관련된 문항 11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에는 ‘술을 마신다,’ ‘담배를 피운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alpha = .86$ 이었다.

범죄성비행(Criminal Delinquency; CDel). 이 척도는 폭력, 절도, 강도, 약물사용, 청소년성매매, 성관련 비행(예, 성폭력, 낙태), 인터넷을 통한 비행 등 형법상으로 범죄로 볼 수 있는 문항 13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에는 ‘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또

는 마약을 한 적이 있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alpha = .79$ 였다.

생활습관 영역 문제

인터넷중독문제(Internet Addiction Scale; Int). 이 척도는 인터넷 사용에 대해 강박적으로 집착하거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내성과 의존성을 갖거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을 때 불안과 우울 등의 금단증상을 경험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학업(일),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부정적응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14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에는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하느라 수업시간에 준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alpha = .90$ 이었다.

섭식문제(Eating Problem Scale; Eat). 이 척도는 섭식문제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무리한 체중조절을 시도하거나 집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12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에는 '내 나이와 키에 비해 체중이 적당한 데도 더 줄이려고 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alpha = .92$ 였다.

또래관계문제의 위험집단 vs. 일반집단 구분

또래관계문제의 위험수준별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ABAS-S 매뉴얼(이해경 외, 2008)에서 제시한 T점수와 해석기준에 따라 집단을 3개로 구분하였다. ABAS-S에서는 표준화된 심리검사(예, MMPI-A)들이 갖는 일반적인 유의수준에 따른 분할기준인 '70T 이상(평균 T점수 50으로부터 2표준편차 이상),' '60-69T(평균 T점수로부터 1~2표준편차),' '60T 이하(평균 T점수로부터 2표준편차 이하)'의 3가지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 기준점은 일반적으로 각각 '매우 높음', '높음', '보통 혹은 평균'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3가지 기준점을 채택하여, 각각 또래관계문제척도에서 70T 이상의 점수를 보인 경우에는 문제행동 수준이 또래에 비해 매우 높은 '고위험집단'으로, 60~69T인 경우에는 문제행동 수준이 또래에 비해 높은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60T 미만인 경우에는 문제행동 수준이 또래와 비슷하거나 낮은 '일반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또래관계문제의 위험수준과 성에 따른 기타 문제행동들의 발생 정도를 비교할 때는, 고위험집단과 잠재위험집단을 묶어 '위험집단'으로 구분하고 나머지를 '일반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위험집단의 비율은 8.1%였으며, 일반집단의 비율은 91.8%였다(표 2 참조).

결 과

또래관계문제 현황과 위험수준

청소년들이 전반적인 또래관계문제를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표 2),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문제의 전체 평균은 .27 (SD =.34)이었고 남녀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또래관계문제의 하위요인별로 평균을 비교해 볼 때 이성친구문제(M=.4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관계기술부족(M=.35), 소외/외로움(M=.20), 불화/따돌림(M=.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남녀에 따라 차이검정한 결과 소외/외로움, 관계기술부족, 이성친구문제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균을 해석해 보면, 소외/외로움, 관계기술부족은 남자집단보다 여자집단이 더 많이 경험하였으며, 이성

친구문제는 여자집단보다 남자집단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문제의 남녀집단과 위험수준(고위험, 잠재위험, 일반)별 집단간 빈도차이를 검증한 결과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였다(표 2). 빈도차이를 해석해보면, 고위험집단과 잠재위험집단에서는 남자집단이 여자집단보다 더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반대로 일반집단에서는 여자집단이 남자집단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고위험과 잠재위험집단을 포함한 위험집단의 비율은 전체 8.3%이고 일반집단은 9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남자집단의 경우 위험집단은 9.4% 일반집단은 90.6%였고, 여자집단의 경우 위험집단은 6.4% 일반집단은 93.6%였다. 이를 통해 남자집단이 여자집단에 비해 또래관계문제에 대한 위험집단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래관계문제와 기타 문제행동들과의 관계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문제가 기타 문제행동들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남자, 여자집단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표 3).

먼저, 문제행동들 간의 전체 상관을 살펴보면 모든 문제행동들은 $p < .001$ 수준에서 상호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또래관계문제가 나머지 문제행동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모든 문제행동들에서 전반적으로 고르게 유의미한 상관계수가 나타났다. 그러나 또래관계문제는 이중에서도 학업주의문제와의 관련성이 가장 높았고($r = .45$), 뒤를 이어 공격행동($r = .38$) 및 인터넷중독($r = .38$)과의 관련성이 동일하게 높았다. 이와 달리, 또래관계문제는 범죄성비행($r = .24$), 섭식문제($r = .25$), 충동과다행동($r = .26$)과는 유사한 정도로 낮은 상관을 보여 또래관계에서의 문제가 이들 문제행동들과는 비교적 관련성이 낮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남녀별로 비교해보았을 때도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전체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자집단에서 또래관계문제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은 학업주의문제($r = .47$)였고, 뒤를 이어 인터넷중독($r = .41$)과의

표 2. 또래관계문제 하위요인별 평균⁺(SD)과 위험수준별 빈도(%) 차이

하위요인	남	여	전체	t/χ^2	
전체	.27(.34)	.26(.34)	.27(.34)	1.19	
소외/외로움	.18(.36)	.23(.42)	.20(.38)	-13.16**	
관계기술부족	.33(.49)	.39(.56)	.35(.52)	-10.77**	
불화/따돌림	.14(.32)	.13(.29)	.13(.31)	1.47	
이성친구문제	.50(.65)	.31(.46)	.43(.60)	83.63**	
위험집단	고위험	78(4.0)	28(2.4)	106(3.4) ^a	9.31**
	잠재위험	105(5.4)	48(4.0)	153(4.9)	
	일반집단	1,772(90.6)	1,114(93.6)	2,886(91.8)	

** $p < .001$

^a 괄호안의 비율은 각 집단내 합이 100%인 비율을 나타냄.

⁺ 또래관계문제의 평균 점수는 '0점: 전혀 그런 적이 없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3점: 자주 그렇다'는 것을 의미함.

상관이 높았다. 이와 함께 전체집단에서와 달리 진로문제와의 상관도 높은 편이었다 ($r=.39$). 여자집단에서도 또래관계문제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은 학업주의문제($r=.44$)였고, 이와 유사한 정도로 공격행동($r=.42$)과의 상관도 높았다. 그러나 남녀 집단 간에는 몇 가지 상이한 점들도 눈에 띄었다. 두 집단 모두에서 또래문제행동과 충동과다행동의 상관은 기타 문제행동과의 상관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또 한 가지, 이보다는 다소 차이폭이 작았지만 또래문제행동과 인터넷중독과의 관계에서 남자집단($r=.41$)은 여자집단($r=.34$)에 비해 높은 상관을 보였다.

두 번째로, 문제행동들의 전체 상관에서는, 나머지 문제행동들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은 학업주의문제, 공격행동, 지위비행이었고 이중 학업주의문제의 상관이 가장 높은 편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업주의문제-교사관계문제($r=.50$), 학업주의문제-공격행동($r=.53$), 학업주의문제-충동과다행동($r=.56$), 학업주의문제-지위비행($r=.52$), 학업주의문제-인터넷중독($r=.57$), 교사관계문제-공격행동($r=.52$), 교사관계문제-지위비행($r=.52$), 공격행동-충동과다행동($r=.52$), 공격행동-지위비행($r=.58$)에서 $r=.50$ 이상의 매우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진로문제, 범죄성비행, 섭식행동은 나머지 문제행동들과 전반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여, 청소년들에게 있어 이들 문제행동들은 비교적 독립적으로 발생함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진로문제-범죄성비행($r=.09$), 범죄성비행-섭식문제($r=.10$)의 관계에서는 전체 쌍 중에서 가장 낮은 상관이 나타났다.

이를 남녀별로 보았을 때 몇 가지 유사한 점과 상이한 점이 확인되었다. 먼저, 남자집단과 여자집단 모두에서 나머지 문제행동들과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은 학업주의문제, 공격행동, 지위비행이었다. 또한 두 집단 모두에서 학업주의문제가 나머지 문제행동들과 갖는 상관이 가장 높았다. 또한 전체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집단 모두에서 나머지 문제행동들과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인 것은 진로문제, 범죄성비행, 섭식행동이었다. 반면, 남녀 집단 간에 몇 가지 차이점도 나타났다. 먼저, 두 집단 모두에서 학업주의문제, 공격행동, 지위비행이 나머지 문제행동들과 높은 상관을 보였지만, 남자집단은 이와 함께 인터넷중독이 나머지 문제행동들과 갖는 상관도 비교적 높았다. 반면, 여자집단은 이들 세 문제행동과 함께 가족관계문제와 교사관계문제가 나머지 문제행동들과 갖는 상관이 비교적 높았다.

또래관계문제 위험수준과 성에 따른 기타 문제행동의 경험 차이

또래관계문제의 위험수준과 성에 따른 기타 문제행동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차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 4에 요약하였다. 또래관계문제의 위험수준은 고위험집단과 잠재위험집단을 합한 '위험집단'과 나머지 '일반집단'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4의 차이검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또래관계문제의 위험수준집단에 따른 주효과가 10개 문제영역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위험/일반집단간 평균차이를 해석해보면 가족관계문제, 교사관계문제, 학업주의문제, 진로문제, 공격행동, 충동과다행동, 지위비행, 범죄성비행, 인터넷중독, 섭식문제에서 또래관계문제의 위험집단이 일반집단보다 기타 문제영역의 문제수준이 더 높았다. 또한 남녀 성에 따른 주효과가 7개 문제영역 - 가족관계문제, 학업주의

문제, 진로문제, 공격행동, 범죄성비행, 인터넷 중독, 섭식문제 - 에서 유의하였다. 성별 평균 차이를 해석해 보면, 여자집단은 남자집단보다 가족관계문제, 학업주의문제, 진로문제, 섭식문제에서 문제수준이 더 높았다. 반면에 남

자집단은 여자집단보다 공격행동, 범죄성비행, 인터넷중독에서 문제수준이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위험수준집단과 성에 따른 2원 상호작용효과는 범죄성비행에서 유의하였고, 충동과 다행동과 섭식문제에서는 유의한 경향이 있었

표 3. 또래관계문제와 기타 문제행동들 간의 상관(r)

변 인		PeeR	FamR	TeaR	LeAt	Car	Agg	ImHy	SDel	CDel	Int	Eat
또래 관계 영역	전체		.35	.32	.45	.36	.38	.26	.29	.24	.38	.25
	남자 (PeeR)	-	.35	.33	.47	.39	.37	.30	.27	.25	.41	.30
	여자		.37	.32	.44	.34	.42	.20	.32	.23	.34	.26
대인 관계 영역	전체			.46	.48	.32	.45	.38	.46	.24	.41	.28
	남자 (FamR)		-	.44	.50	.31	.44	.35	.43	.27	.39	.23
	여자			.49	.51	.34	.50	.41	.52	.23	.47	.35
교사 관계 영역	전체				.50	.27	.52	.38	.52	.32	.33	.22
	남자 (TeaR)			-	.47	.26	.54	.38	.49	.35	.30	.18
	여자				.54	.28	.50	.39	.57	.30	.40	.29
학업 진로 영역	전체					.47	.53	.56	.52	.24	.57	.36
	남자 (LeAt)				-	.48	.54	.55	.51	.26	.60	.33
	여자					.44	.54	.58	.56	.24	.58	.41
진로 영역	전체						.26	.33	.20	.09	.34	.31
	남자 (Car)					-	.28	.33	.16	.11	.38	.22
	여자						.26	.33	.25	.08	.35	.37
품행 관련 영역	전체							.52	.58	.39	.45	.20
	남자 (Agg)						-	.53	.58	.39	.43	.25
	여자							.53	.62	.38	.44	.31
	전체								.36	.21	.44	.30
	남자 (ImHy)							-	.33	.23	.44	.28
	여자								.43	.19	.47	.37
지위 비행 영역	전체									.47	.38	.23
	남자 (SDel)								-	.48	.34	.21
	여자									.48	.47	.30
범죄 성비행 영역	전체										.26	.10
	남자 (CDel)									-	.25	.18
	여자										.30	.10
인터넷 중독 영역	전체											.22
	남자 (Int)										-	.28
	여자											.36
섭식 문제 영역	전체											
	남자 (Eat)											-
	여자											

표안의 모든 수치는 $p < .001$ 에서 유의함

표 4. 또래관계문제 위험수준집단과 성에 따른 기타 문제행동 평균(SD)과 집단간 차이 요약

척도	또래 관계 문제 수준									F			
	위험집단			일반집단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집단(A)	성별(B)	A*B	
대인 관계	가족관계문제	.96(.55)	1.07(.65)	1.00(.58)	.57(.42)	.61(.48)	.59(.45)	.61(.45)	.64(.50)	.62(.47)	174.59**	5.74*	1.28
	교사관계문제	.58(.58)	.62(.62)	.60(.59)	.23(.33)	.25(.37)	.24(.35)	.26(.38)	.27(.40)	.26(.39)	190.62**	.93	.02
학업	학업주의문제	1.16(.53)	1.23(.59)	1.18(.54)	.57(.45)	.65(.47)	.61(.46)	.63(.48)	.69(.50)	.65(.49)	314.91**	5.04*	.04
진로	진로문제	1.29(.64)	1.41(.73)	1.33(.67)	.70(.63)	.87(.63)	.77(.63)	.75(.65)	.91(.65)	.81(.66)	159.25**	10.17*	.31
폭력행동	공격행동	.54(.38)	.51(.52)	.53(.43)	.26(.27)	.19(.22)	.23(.25)	.29(.30)	.21(.26)	.26(.28)	241.22**	7.01**	1.05
	폭행	.97(.53)	.89(.55)	.95(.54)	.66(.45)	.70(.47)	.67(.46)	.69(.47)	.71(.48)	.70(.47)	58.74**	.50	3.64+
관련	지위비행	.35(.47)	.42(.55)	.37(.50)	.12(.27)	.13(.24)	.13(.26)	.14(.30)	.15(.28)	.15(.29)	160.58**	3.46	1.78
	범죄성비행	.11(.30)	.07(.21)	.10(.27)	.02(.08)	.01(.05)	.02(.07)	.03(.12)	.01(.07)	.02(.11)	93.96**	12.83**	4.11*
생활	인터넷중독	.94(.53)	.79(.58)	.90(.55)	.51(.42)	.37(.40)	.45(.42)	.54(.45)	.40(.42)	.49(.44)	203.99**	22.33**	.21
습관	섭식문제	.69(.55)	1.30(.77)	.88(.68)	.36(.45)	.84(.66)	.55(.59)	.39(.47)	.87(.67)	.57(.60)	102.77**	197.93**	3.16**

* $p < .05$. ** $p < .01$. + $p = .06$ ** $p =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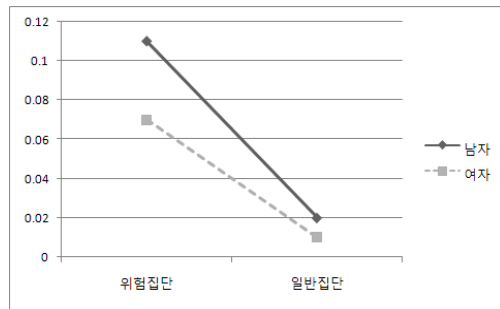


그림 1. 범죄성비행의 위험/일반집단×남여 상호작용효과

다(각각 $p = .06$, $p = .08$). 범죄성비행에서의 2원 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해보면, 일반집단에서는 범죄성비행이 남자청소년(남자 $M = .01$)과 여자청소년(여자 $M = .02$)간에 비슷한 반면에, 위험집단에서는 범죄성비행이 남자청소년(남자 $M = .11$)과 여자청소년(여자 $M = .07$)간에 그 차이가 훨씬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또래관계문제에 대한 다른 문제행동들의 영향력

다른 문제행동들이 또래관계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enter 방식)을 실시하였다. 남녀집단별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남자집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충동과다행동을 제외한 9개의 문제행동들이 또래관계문제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인 것은 역시 학업, 진로관련 문제행동들이어서, 학업주의문제($\beta = .189$)와 진로문제($\beta = .180$)는 전체 중 가장 큰 설명력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생활습관 영역의 설명력이 비교적 높아, 섭식문제($\beta = .127$)와 인터넷중독($\beta = .113$)이 각각 세 번째, 네 번째로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반면, 전체집단에서와는 달리 품행관련 영역의 설명력이 비교적 낮아, 공격행동($\beta = .072$)과 지위비행($\beta = .070$)은 전체 유의미한 설명변인 중 가장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들 9개 변인이 남자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문제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32%였다.

반면, 여자집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10개의 문제행동 중 교사관계문제, 인터넷중

독, 섭식문제를 제외한 총 7개의 문제행동들이 이들의 또래관계문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영역별로 보았을 때, 품행관련 영역 중 공격행동과 충동과다행동의 영향력이 두드러져 전체집단이나 남자집단과는 대조를 보였다. 즉, 여자집단의 또래관계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공격행동($\beta=.279$)이어서 남자집단에서 공격행동이 낮은 설명력을 보인 것과 차이가 있었다. 두 번째로 큰 설명력을 보인 변인은 학업주의문제($\beta=.251$)여서 남자집단에서와 유사한 양상

이었지만, 충동과다행동은 세 번째로 커다란 설명력을 보여($\beta=-.216$) 남자집단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던 것과 대조를 이뤘다. 한편, 여자집단의 또래관계문제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낮은 변인들은 지위비행과 범죄성비행이었다. 전체적으로 이들 7개 변인이 여자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문제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31%였다.

종합하여 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다른 문제행동들이 남녀 청소년의 또래관계문제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정

표 5. 또래관계문제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변 인	B	Beta	t	p
남 자 (Constant)	-.013		-.949	.343
가족관계문제	.057	.077	3.360	.001
교사관계문제	.083	.094	3.854	.000
학업주의문제	.129	.189	6.391	.000
진로문제	.092	.180	8.189	.000
공격행동	.081	.072	2.651	.008
충동과다행동	-.031	-.044	ns -1.820	.069
지위비행	-.076	-.070	-2.657	.008
범죄성비행	.242	.090	4.118	.000
인터넷중독	.084	.113	4.604	.000
섭식문제	.090	.127	6.274	.000
R ² = .32, F = 90.59, D < .01				
여 자 (Constant)	.018		1.011	.312
가족관계문제	.077	.115	3.622	.000
교사관계문제	.012	.014	ns .441	.659
학업주의문제	.169	.251	6.731	.000
진로문제	.086	.166	5.918	.000
공격행동	.363	.279	8.043	.000
충동과다행동	-.152	-.216	-6.768	.000
지위비행	-.113	-.093	-2.522	.012
범죄성비행	.389	.082	2.887	.004
인터넷중독	.047	.059	ns 1.848	.065
섭식문제	.021	.043	ns 1.524	.128
R ² = .31, F = 52.52, D < .01				

도임을 알 수 있다(남 $R^2 = .32$, 여 $R^2 = .31$). 그러나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들에는 다소 차이가 있어 남자집단에서는 학업과 진로영역의 영향력이 큰 반면, 여자집단에서는 품행관련 영역 중 일부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남자집단에서는 다양한 문제행동들이 비교적 고른 크기의 설명력을 갖고 또래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보이지만, 여자집단에서는 더 적은 수의 문제행동들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지만 몇 개의 문제행동들(특히, 공격행동, 학업주의문제, 충동과다행동)이 상대적으로 큰 설명력을 갖고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문제의 양상과 위험수준 정도를 밝히고, 또래관계문제를 설명하는 다양한 문제행동의 영향력을 밝히고, 이들 결과가 남녀간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밝혀진 대표적인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행동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느끼는 소외감이나 외로움에 비해 이성관계에서의 갈등과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는 성별차이가 분명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우선 평균차이 검증에서는 남녀청소년들의 전체적인 또래관계문제 정도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과 달리 이성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껴,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거나 이성을 때릴 때 어색해하고 부끄러워하며 불안해하는 경향이 컸다. 반면, 여자청소년은 이보다는 일반 또래관계 유지를 위한 기술부족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즉, 이들은 또래에게 말을 걸거나 사귀기,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팀을 이뤄 일하기 등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했다. 또한 또래관계문제의 위험수준 분석 결과, 고위험군과 잠재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남자청소년이 높아, 심각한 정도의 또래관계문제를 겪고 있는 비율이 남자청소년에게서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남녀 청소년들은 전반적인 또래관계문제 정도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부내용을 보았을 때 각기 크게 겪고 있는 문제의 내용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자청소년은 이성과의 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반면, 여자청소년은 동성 또래와의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이성교제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성교제 경험현황이나 이성교제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성차가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김혜원, 이해경, 2000b; 서희화, 2006; 조승희, 2003; 한만열, 2003). 그러나 평균적으로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에 비해 이성교제를 하는 기간이 더 길고(한만열, 2003) 상대에게 느끼는 친밀감도 더 강해(한만열, 2003), 이들이 상대에게 갖는 심리적 무게는 더 클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이성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더 호소한 것은 이성 상대에 대한 이러한 심리적 무게와 친밀감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한편, 본 연

구에서 나타난 여자청소년들의 관계기술에 대한 어려움도 기존 연구 결과들과 비교분석할 만하다. 이는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이 또래관계에 필요한 의사소통기술(설득, 위로, 대상참조 기술 등이 좋다는 결과(김진경, 유안진, 2002)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그러나 남자청소년과 달리 여자청소년이 갖고 있는 또래관계에서의 심리적 특징들은 이들로 하여금 또래관계 유지에 대한 무력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은 더 집중적이고 친밀한 동시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2인의 관계속에서 더 높은 자기노출과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임지원, 2009; Claes, 1992; Berndt, 1982, 임지원, 2009 재인용; Parker & Asher, 1993). 또한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은 친구에 대한 기대가 높고(최정미, 김미란, 2003) 집단 내 수용과 친밀감 형성에 더 높은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다(이점숙, 2003).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 특징들로 인해 여자청소년들은 만족스러운 정도의 또래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남자청소년보다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관계기술에 더 비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들이 또래관계로부터의 문제를 호소할 때, 우리는 이들의 성에 따라 고민하는 세부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또래관계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세부계획을 세울 때 보다 효율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문제가 이들이 경험하는 기타의 문제행동들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또래관계문제를 많이 보이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비해 나머지 모든 문제행동들 또한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관계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이들은 가족·교사와의 대인관계문제, 학업·진로관련문제, 품행관련 문제, 인터넷중독과 섭식문제와 같은 다양한 문제행동들 또한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또래관계문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인 것은 학업관련 문제행동이었다.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문제가 대부분 학교장면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가 수업이나 학교공부문제와 연결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관계에는 약간의 남녀차가 있었는데 남자청소년은 또래관계문제를 보일 때 학업관련 문제와 함께 다음으로 인터넷중독을 많이 보였다.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인터넷중독 정도가 매우 높고(이혜린, 2008; 윤현민, 2005;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인터넷중독에 빠질 경우 또래관계가 부정적으로 되고(김경신, 2003; 김경호, 2002; 서주현, 2001; 조준범, 2001),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에 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있어 비사회적 활동(예: 게임, 정보탐색 등)에 더 몰입하는 반면 여자청소년은 사회적 활동(예: 이메일, 채팅, 동호회 등)에 더 몰입함(윤현민, 2005)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에 비해 또래관계문제와 인터넷중독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생길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즉, 남자청소년은 인터넷중독에 더욱 많이 빠지고 더욱 비사회적 인터넷 활동을 하는 경우 또래와의 관계에서 여자청소년보다 더 부정적인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여자청소년은 또래관계문제를 보일 때 학업관련 문제와 공격적 행동을 동시에 많이 보이고 있었다. 이 또한 기존 결과의 일부와 맥을 같이 하는데,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에게는 공격성이 또래거부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인(Salmivalli et al., 2000, 이은주, 2001 재인용)임이 밝혀진 바 있기 때문이다. 즉, 남자청소년과 달리 여자청소년은 또래관계에서 공격적 행동을 보일 때 또래관계에서의 문제와 더 큰 관련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문제가 특정의 문제행동과 더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있고 이러한 관련성이 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또래관계문제를 보이는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경우, 이들의 또래관계 측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타의 문제행동들과 가질 수 있는 관련성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또래관계문제의 위험수준과 성에 따라 기타의 문제행동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충동과다행동, 범죄성 비행, 섭식문제에서 상호작용효과의 경향성이 나타났고, 특히 범죄성비행의 효과는 유의미했다. 이를 풀어보면 또래관계문제가 없는 일반 남녀청소년들은 비슷한 정도의 범죄성 비행을 하지만, 또래관계문제가 심각한 경우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에 비해 범죄성 비행 정도가 훨씬 커짐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말해, 남자청소년들이 또래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는 것은 폭력, 절도, 성범죄 등 사회적 문제와 더욱 큰 관련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자청소년들의 또래

관계문제 심화에 대한 특별한 사회적 관심과 도움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다양한 문제행동들이 또래관계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욱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10개의 문제행동 모두가 또래관계문제를 중요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나 또래관계문제가 기타의 문제행동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학업주의문제의 설명력이 가장 커서 청소년들이 수업이나 학업에 관한 부주의, 흥미 부족 등의 문제를 겪을 경우 이는 또래들과의 관계형성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원인이 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적 성취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김성훈, 박부권, 2006, 김상아, 2008 재인용; 김잔디, 2003; 남경희, 2006, 김상아, 2008 재인용)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바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교사관계문제에 대해서였다. 교사와의 관계문제는 또래관계문제를 설명하는 변인이긴 했지만 전체 10개의 문제행동 중 가장 작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보면 교사관계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또래관계에서의 부정적 경험과는 매우 밀접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교사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청소년들의 또래관계 개선을 꾀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이 예상된다.

덧붙여 흥미를 끄는 점은 남녀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행동이 다소 다르다는 점이었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학업관련문제와 함께 진로, 섭식, 인터넷 관련문제들이 이들의 또래관계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여자청소년은 학업주의문제보다 공격행동의 영향력이 더 컸고, 다음으로 학업주의문제와 충동과다행동이 중요

한 변인들이었다. 이는 또래관계문제와 공격 행동간의 밀접한 관계가 여자청소년들에서만 두드러졌던 위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충동과다행동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충동적이고 과하게 보이는 언행임을 감안할 때, 공격행동과 유사한 맥락상에서 여자청소년들의 또래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격행동과 충동과다행동의 두 변인이 남자청소년과 달리 여자청소년의 또래관계문제에 매우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은, 남자청소년과 달리 여자청소년에게는 또래관계에서의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된다는 기존 연구(Salmivalli et al., 2000, 이은주, 2001 재인용)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충동과다행동과 지위비행이 전체와 남녀 집단 모두에서 일관되게 부적 방향의 영향력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상관분석 결과와는 다른 결과로, 남녀 청소년들 모두 충동과다행동을 적게 보이고 지위비행이 적은 경우 또래관계문제가 더 많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선행 연구들(Kaplan, 1984, 1995)에서는 청소년들이 지위비행을 통해 또래로부터의 인기와 지위를 획득하고 따라서 이런 경험이 또래관계에 비록 일시적으로라도 순기능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비일관적인 결과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김혜원, 2009) 보다 구체적인 결과는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또래관계 문제의 실상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하위내용별 현황을 밝혀하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문제들이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행동들과의 관련성속에서 이해하고, 이러한 문제행동

의 경험들이 또래관계문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의의를 갖는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는 그들의 성에 따라 미묘하고 다양한 차이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위의 사항들을 성별에 따라 비교검토했다는데 본 연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다루면서 중학생 응답자만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청소년 연구를 위해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을 함께 살펴본다는 점과 최근 청소년기의 이른 도래에 따른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넓은 연령대를 포함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정 지역의 청소년들만을 연구에 포함시킴으로써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우리나라 청소년 전체에게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청소년 문제행동을 이해하고 정의하는데는 다양한 학문적 입장이 존재한다는 현실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임의적으로 각 문제행동의 의미와 세부내용을 규정했기 때문에, 문제행동들 간의 독립성이나 배타성 및 의미공존성 등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태경 (2008). 교우관계문제검사의 교차타당화.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신 (2003). 전자게임의 이용정도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호 (2002).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이 학습 태도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

- 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혜 (2004). 대학생의 가족체계,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간의 관계.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아 (2008). 사회경제적 배경과 성적이 여고생 또래관계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잔디 (2003). 아동·청소년의 또래지위, 학업성적과 적응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 (2007).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또래관계와 또래동조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내 (2007). 부모 및 또래애착과 대학생의 섭식태도와의 관계: 자의식의 매개효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경, 유안진 (2002).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의사소통 기술과 또래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3(2), 121-135.
- 김혜원 (2009). 청소년 부적응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 재조명. 미래청소년학회지, 6(3), 1-22.
- 김혜원, 이해경 (2000a). 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관련경험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탐색. 한국교육심리학회, 15(1), 183-210.
- 김혜원, 이해경 (2000b). 남녀 청소년들의 성행동과 성태도 현황에 근거한 성교육 방향의 모색. 2000년 법심리학 심포지움 논문집: 청소년·법·심리, 239-262.
- 김혜원, 임동훈 (2004). 남녀 고등학생들의 하위유형별 비행발생의 관련성 파악: 폭력비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5(1), 167-190.
- 김혜진 (2006). 초등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지지와 학업성취도 및 교우관계와의 연관성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화 (2009). 청소년 초기의 또래동조성과 비행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감독 및 친한 친구 비행의 중재효과. 한국청소년학회, 16(7), 127-147.
- 나유미 (2000). 또래에 대한 아동의 내적표상 모델과 또래수용 및 친구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1(4), 143-158.
- 남민숙 (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학교적응의 관계.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윤주 (2003).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인터넷사용 및 인터넷중독.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현미 (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영선 (2003).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비행에 관한 연구: 충남지역 고등학생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진하 (200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친구지지 및 교사관계와 학교적응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숙, 손희권(1998). 학생의 왕따 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순주 (2008).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중독 정동에 따른 공격성과 교우관계의 차이.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의숙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과 또래관계 질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향숙 (2004). 가족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친구관계 및 학교적응.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종달 (2000). PC통신과 INTERNET이 청소년

- 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주현 (2001). 청소년의 인터넷을 통한 친구관계의 기능, 구조적 특성 및 만족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희화 (2006). 청소년의 이성교제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천안, 아산시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설찬미 (2010). 청소년의 정신건강, 친구 및 부모 애착과 진로성숙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근수 (2007).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가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유림 (2007). 공격적 아동의 사회적 수용에 대한 자아 및 또래 지각과 외현적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77-85.
- 신지영 (2000).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 및 가족응집력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복금, 김경희 (2001). 아동의 불안 정서에 대한 대처반응과 또래수용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회, 6(1), 71-87.
- 양계민, 정현희 (1999).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해자, 피해자, 일반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2), 91-104.
- 오미경 (1998). 감각추구경향과 사회화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 한유진, 김진경 (2002).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또래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3(3), 79-90.
- 윤미경 (1998). 아동의 또래수용과 우정관계의 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향순 (2009). 청소년의 또래관계 문제행동과 관련된 가정환경 변인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현민 (2005). 남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공격성 및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변인들.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혜미, 남영옥 (2007). 청소년의 위험행동 관련요인: 심리정서적 특성의 매개경로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3(2), 127-153.
- 이경연 (2010). 청소년의 부적응적 사고와 또래관계의 질이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복원 (2008). 청소년의 애착요인 및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2000).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주 (2001). 공격적 행동의 유형 및 성별에 따른 집단괴롭힘 가해아동과 피해아동의 또래관계 비교. 아동학회지, 22(2), 167-180.
- 이점숙 (2003). 아동의 연령, 성별 및 또래지위에 따른 또래집단 진입과정과 자기역량지각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점숙, 유안진 (1999).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따른 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 아동학회지, 20(30), 107-121.
- 이해경 (2003). 교사용 청소년행동문제평가척도의 개발: 신뢰도와 타당도의 분석. 청소년학 연구, 10(4), 233-262.
- 이해경, 신현숙, 이경성 (2003). 청소년 문제행동 평정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청소년 자기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10(3), 105-132.
- 이해경, 신현숙, 이경성 (2004). 청소년 자기보고형 문제행동평가척도의 개발: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 17(1), 147-170.
- 이혜경, 신현숙, 이경성 (2008). ABAS-S 청소년 행동평가척도-청소년용: 상담을 위한 활용.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 이혜린 (200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우울/불안이 남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지원 (2009). 중학생의 애착유형과 성별에 따른 친구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덕진 (2000). 학급 내 연결망과 학습 성과. 사회과 교육학 연구, 4(2), 161-185.
- 정성진 (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와 또래 지위 및 친구관계의 질.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혜원 (2007). 아동용 교우관계문제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승희 (2003). 청소년 이성교제 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주연 (2010). 부모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이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춘범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 및 학교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지역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중순 (2000). 고등학생의 PC통신 이용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승희 (2003). 교사-학생의 의사소통유형과 학생의 대인관계성향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5).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정 초급 연수자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최자옥 (2007).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과 교사와 학생의 관계, 교우관계, 스트레스 수준간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정미, 김미란 (2003). 청소년의 친구관계 특성과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373-394.
- 최진희 (1999). 아동의 행동문제와 또래괴롭힘이 학교적응과 우정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성현 (2006). 부모, 친구와의 애착정도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2009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한만열 (2003). 이성교제 실태에 따른 청소년의 이성친구에 대한 애착유형과 자아존중감과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상철 (2006). 청소년문제행동: 심리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 한현아 (2007). 가정의 위험요인,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현아, 도현심 (2008). 가정의 위험요인,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1), 87-101.
- 허니예 (200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hassler, L. (1997). Understanding anorexia nervosa and bulimia nervosa from an attachment perspective.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25(4), 407-423.
- Claes, M. E. (1992). Friendship and personal

-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5(1), 30-55.
- Coie, J. D., Dodge, K. A., & Kupersmidt, J. (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17-59).,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kovic, M. & Gerris, J. R. M. (1993). Developmental analysis of social cognitive and behavioral differences between popular and rejected childre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4(1), 367-386.
- Flannery, D. J., Williams, L. L., & Vazsonyi, A. T. (1999). Brief reports: 쩌 are they with and what are they doing? Delinquent behavior, substance use, and early adolescents' after-school tim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9(2), 247-253.
- Freeman, H. & Brown, B. B. (2001). Primary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Differences by attachment sty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6), 653-674.
- Hodge, E. V., Michel, B., Frank, V., & Bukowski, W. M. (1999). The power of friendship: Protection against an escalating cycle of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5(1), 94-101.
- Kaplan, H. B. (1984). *Patterns of juvenile delinquency*. Beverly Hills, CA: Sage.
- Kaplan, H. B. (1995). Drugs, crime, and other deviant adaptation. In H. B. Kaplan(Ed.) *Drugs, crime, and other deviant adaptations longitudinal studies*(pp.3-46). New York: Plenum.
- Newcomb, A. F., Bukowski, W. M., & Pattee, L. (1993). Children's peer relations: A meta-nalytic review of popular, rejected, neglected, controversial, and average sociometric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113(1), 99-128.
-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Hemisphere Press.
- Olweus, D. (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5(4), 1171-1190.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2), 611-621.
- Petrie, T. A. (1993). Disordered eating in female collegiate gymnasts prevalence and personality/attitudinal correlate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5(4), 424-436.
- Polivy, J. & Herman, C. P.(2002). Causes of eating disorder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2), 187-213.
- Santor, D. A., Messervey, D., & Kusumakar, V.(2000). Measuring peer pressure, popularity, and conformity in adolescent boys and gir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2), 163-182.
- Schwartz, D.,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 (1997). The early socialization of aggressive victims of bullying. *Child Development*, 68(4), 665-675.

1 차원고접수 : 2011. 2. 7.

심사통과접수 : 2011. 3. 2.

최종원고접수 : 2011. 3. 18.

Gender Differences on the Characteristics and Affecting Factors of Peer Relation Problems among Adolescents

Haegyong Lee

Korea Cyber University

Hyewon Kim

Hoseo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and affecting variables on peer relation problems among male and female adolescents. Total 3,145 middle school students in Busan area completed ABAS-S, the scale consisted of eleven problem behaviors of adolescents. Results showed that first, adolescents experienced problem of relationships with the opposite sex the most. There were also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in that male adolescents experienced problem of relationships with the opposite sex the most whereas female adolescents experienced problem of relationship skills the most. Second, peer relation problems were correlated with all other problem behaviors, especially with learning/attention problem. Third, 2-way ANOVA showed that criminal delinquency was affected by both the level of peer relation problems and gender of adolescents interactively. Last,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all other problem behavior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peer relation problems, and learning/attention problem and career problems, especially, had the biggest influence.

Key words : *peer relation, peer relation problems, adolescent, problem behavior.*